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2009. 4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

2009. 4.

최 수 영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정 영 태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서론 .....	1
II. 제12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	2
1.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 .....	2
2. 국가지도기관 선거 .....	2
3.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	5
4. 2008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9년 국가예산 .....	5
III. 제12기 제1차 회의 의미 .....	8
1. 3기 김정일 정권 공고화를 위한 조치 .....	8
2. 경제운용(재정측면)에서의 호전 가능성 .....	12
IV. 종합평가 .....	17

# 표 목 차

<표 Ⅲ-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 분포 .....	11
<표 Ⅲ-2>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	12
<표 Ⅲ-3> 북한의 재정규모 .....	13
<표 Ⅲ-4> 북한의 결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	14
<표 Ⅲ-5> 북한 예산수입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	15
<표 Ⅲ-6> 북한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	16

## I. 서론

- 북한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하였음.
  - 참가자: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중 김정일 등 663명
  - 방청자: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는 다음 네 가지 의안이 토의되었음.
  - 국방위원회 위원장 추대
  -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내각) 선거
  - 사회주의 헌법의 수정·보충
  - 2008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09년 국가예산
  
- 예년과 달리, 2008년 내각의 사업정형과 2009년 내각의 과업이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았음.
  
- 이 보고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내용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종합 평가하는 것임.

## II. 제12기 제1차 회의 주요 내용

### 1.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

- 김영남 대의원은 당, 군, 민의 총의를 반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재추대에 대한 당 중앙위와 당 중앙군사위의 제의를 최고인민회의에 전달하였음.
  - 최고인민회의는 만장일치로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음을 선언

### 2. 국가지도기관 선거

#### 가. 최고인민회의

- 최고인민회의 의장 최태복은 유임되고 부의장은 교체되었음.
  - 부의장: 김완수 대의원, 홍선옥 대의원
    - ※ 강능수는 제11기 제6차 회의에서 부의장에서 소환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은 유임, 김양건(통일전선부장) 등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하였음.
  - 부위원장: 양형섭, 김영대
  -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 서기장: 최영림
  - 위원: 류미영, 강영섭, 심상진, 홍석형, 김양건, 리용철, 김병팔,

강창욱, 로성실, 변영립, 태영철

-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였음.
  - 법제위원회: 주상성(위원장), 리길송, 김병률, 김평해, 성자립, 박관오, 김영일
  - 예산위원회: 박남기(위원장), 리철봉, 홍서현, 계영삼, 문명학, 김명환, 조혜숙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하였음.
  - 위원장: 김국태
  - 위 원: 김원홍, 지영춘, 박도춘, 김시학, 김영호, 우두태

#### 나. 국방위원회

- 김정일의 제의에 따라 국방위원회 1부위원장(유임), 부위원장(유임), 위원들을 선출하였음.
  - 1부위원장: 조명록(총정치국장, 유임)
  - 부위원장: 김영춘(인민무력부장, 유임), 리용무(인민군 차수, 유임), 오극렬(당 작전국장, 유임)
  - 위원: 전병호(군수공업부장, 유임), 김일철(인민무력부 1부부장, 유임), 백세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임), 장성택(당 행정부장, 신임), 주상성(인민보안상, 신임), 우동측(국가 안전보위부 수석부부장, 신임), 주규창(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신임), 김정각(총정치국 제1부국장, 신임)



※ 국방위원회 위원은 5명이 새로 임명되고 1명(최용수) 탈락으로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증가

## 다. 내각

- 김영일 총리, 부총리, 상(相) 등 대부분 유임되었으나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총리 1인(전승훈 → 오수용) 교체
  - 로두철 부총리는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임
  - 한광복(전자공업상), 황학원(도시경영상), 문응조(수매양정상) 내각 상으로 신규 진입
  - 수도건설부 신설, 김응관을 상(相)급인 수도건설부장에 임명
  - 내각의 성(省)급 기구였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추정
  
- 내각에 임명된 내각 성원들은 다음과 같음.
  - 부총리: 광범기, 태종수, 로두철(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오수용
  - 상(相): 박의춘(외무상), 주상성(인민보안상), 허택(전력공업상), 김형식(석탄공업상), 강민철(채취공업상), 김희영(원유공업상), 김태봉(금속공업상), 조병주(기계공업상), 한광복(전자공업상), 동정호(건설건재공업상), 전길수(철도상), 라동희(육해운상), 김창식(농업상), 리무영(화학공업상), 리주오(경공업상), 리룡남(무역상), 김광영(림업상), 박태원(수산상), 황학원(도시경영상), 박송남(국토환경보호상), 배달준(국가건설감독상), 김봉철(상업상),

문응조(수매량정상), 김용진(교육상), 류영섭(체신상),  
강능수(문화상), 김완수(재정상), 정영수(로동상), 최창식  
(보건상), 김의순(국가검열상)

- 기 타: 변영립(국가과학원장), 박학선(체육지도위원장), 리광곤  
(중앙은행총재), 김창수(중앙통계국장), 김영호(내각사무  
국장), 김응관(수도건설부장), 리길송(중앙검찰소 소장)

### 3.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 조선중앙방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  
보충한 것으로 보도하였음.
  - 현재까지 헌법의 수정·보충 관련 내용은 미발표

### 4. 2008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09년 국가예산

#### 가. 2008년 결산

- 2008년 국가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101.6%로 수행,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음.
  -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이득금과 협동단체이득  
금 수입계획의 초과수행 결과
  - 지방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17.1% 초과 수행
- 국가예산지출은 계획 대비 99.9%로 집행되었음.
  - 농업부문 지출액은 2007년 대비 5.4% 증가

-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및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증가율은 미발표
- 경공업 현대화, 교육·문화·보건·체육사업 발전 및 인민적 시책들을 실시하는데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다고 언급
- 국방비로 예산지출총액의 15.8% 지출

## 나. 2009년 예산

- 2009년 국가예산 수입계획은 2008년 대비 5.2% 증액 편성하고, 전년 대비 예산수입의 부문별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음.
  - 국가기업이득금: 5.8%
  - 협동단체이득금: 3.1%
  -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6.1%
  - 부동산사용료 수입금: 3.6%
  - 사회보험료 수입금: 1.6%
  
- 2009년 국가예산 지출계획은 2008년 대비 7.0% 증액 편성하고, 전년 대비 예산지출의 부문별 증가율을 다음과 같이 예견하였음.
  - 인민경제 선행부문: 8.7%
  - 과학기술발전사업: 8.0%
  - 농업부문: 6.9%
  - 경공업부문: 5.6%
  - 도시경영부문: 11.5%
  -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 중 교육부문 8.2%, 문화예술부문 3.2%, 보건부문 8.0%, 체육부문 5.8%

- 2009년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구성에서는 국방비 지출만을 제시함.
  - 국방비로 국가예산 지출총액의 15.8% 편성

### Ⅲ. 제12기 제1차 회의 의미

#### 1. 3기 김정일 정권 공고화를 위한 조치

##### 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상화 강화

- 로켓발사(2009.4.5)를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군사·경제적 영도력의 성과로 강조함.
  - 선군정치(사상·정치강국) → 핵실험(군사강국) → 로켓발사로 ‘경제강국’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력’에 의한 것으로 선전
  - ※ “우리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으며 강성대국 건설의 진격로를 열고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습니다”(김정일, 로동신문 2009.4.11)
  - ※ 로켓발사를 “장군님의 선군혁명 영도의 빛나는 결실”로 전제, “강한 정치지도자가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법”이며 “위인이 국력을 좌우한다”고 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고 해도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지 못한 인민은 오늘과 같은 사변을 체험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력 과시(로동신문 2009.4.7)

##### 나. 국방위원회 실무기능 강화

- 2009년 수정헌법 예상내용: 국방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기능과 권능을 격상시키는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이 삽입되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국방위원회가 “국가 정치체제의 중추”라는 사실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이 “나라의 정치·군사·경제적 역량의 총체로 통솔지휘하며 방위력을 비롯한 전반적 국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 강화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조국과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헌법규정을 보완할 필요성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 또는 결정을 부문별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실무기능 강화가 예상됨.
  - 격상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실질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원화 및 확대
  - 명목적 군사인물 중심에서 실무 가능한 여타 권력부문 인물을 보충·확대

#### 다. 김정일 ‘직할통치’에서 ‘부분적 위임통치’ 기반 조성

- 김정일 건강이상 이전 북한의 통치구도는 주요권력 기관에 대한 김정일 직할통치를 특징으로 하였음.
  - 당(중앙당 조직지도부), 군대(군 총정치국 및 총참모부), 사회치안(인민보안성), 정권안보(국가안전보위부)에 대한 직할 통치로 김정일 업무과다 상황 초래
- 김정일 건강 이상 이후 주요 권력기관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위임 통치하는 징후가 나타남.
  -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2009.2.11)

함으로써 인민 무력부에 대한 국방위 위임 통치

- 중앙당 당행정부장(장성택), 군총정치국(김정각), 인민보안성(주상성), 국가안전보위부(우동측) 등도 위임 통치함으로써 김정일 과다 업무 경감

#### 라. 내각 교체 최소화로 안정 유지

- 부총리 4인 중 1인 오수용, 국가계획위원장 로두철, 전자공업상 한광복, 도시경영상 황학원, 수매양정상 문응조 신규 임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임되었음.
  - 수도건설부장을 신설하고, 김응관을 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인민경제관리개선 차원에서 수도건설 및 재건 필요성 반영

#### 마. 선군정치 강화 지속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으로서 군인 16.9%, 노동자 10.9%, 협동농장원 10.1%로서 군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선군후로’ 원칙 반영
  -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예산의 15.8% 유지
    - ※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쏟으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튼튼히 세우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다짐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도 우리의 신성한 조국 땅을 단 한 치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 비서, 국방위원장 재추대 평양시 경축대회 보고 2009.4.10)

-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의 구성 분포는 제10기, 제11기와 비교하였을 때 직업별에서 노동자 출신 대의원의 비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군인 대의원의 비율을 소개하였음.
- 기타 연령별, 성별, 학력별 등의 비율은 과거와 유사

**<표 III-1>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 분포**

	구 분	제10기	제11기	제12기
직업	노동자	31.3	33.4	10.9
	협동농장원	9.3	9.3	10.1
	군인	-	-	16.9
연령	35세 이하	1.9	2.2	1.0
	36세~55세	48.5	50.1	48.5
	56세 이상	49.6	47.7	50.5
성별	여성	20.1	20.1	15.6
	남성	79.9	79.9	84.4
학력	대졸	85.0	91.9	94.2
	전문·공등기술학교 졸	15.0	6.1	-
기타	명예칭호 소유자 <sup>1)</sup>	63.8	48.0	42.4
	학위·학직 소유자 등 <sup>2)</sup>	64.5	89.5	90.4

주: 1) 김일성 훈장·김일성상 수상자, 공화국 영웅·노력영웅 칭호 소유자 등  
 2) 교수·박사 등 학위·학직 소유자,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등



## 2. 경제운용(재정측면)에서의 호전 가능성

### 가. 2008년 결산

#### <소폭의 재정흑자 시현>

- 2008년 결산수입액은 4,586.7억원, 결산지출액은 4,512.2억원으로 74.5억원 재정흑자를 보임.
  - 2008년 북한의 국가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1.6% 증가한 반면, 국가예산지출은 계획 대비 0.1% 미달한 결과
  -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재정흑자 발생

#### <표 Ⅲ-2> 북한의 예산 및 결산 발표 내용

(단위: 북한 만원)

	예산 <sup>1)</sup>		결산 <sup>2)</sup>	
	수입	지출	수입	지출
2003년	113.6%	114.4%	100.9%	98.2%
2004년	3,512억6,600만원		112억6,100만원 적자	
	105.7%	108.6%	-	99.3%
2005년	115.1%	111.4%	100.8% (116.1%)	104.4%
2006년	107.1%	103.5%	97.5% (100.4%)	99.9%
2007년	105.9%	103.3%	100.2% (106.1%)	101.7%
2008년	104.0%	102.5%	101.6% (105.7%)	99.9%
2009년	105.2%	107.0%	-	-

주: 1)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전년 대비 수치임.

2) 결산의 수입과 지출은 계획 대비, ( )는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 <표 III-3> 북한의 재정규모

(단위: 북한 만원)

	예산		결산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재정수지
2003년	-	-	33,232,356	32,344,936	-887,420
2004년	35,126,600		33,754,600	34,880,700	-1,126,100
2005년	38,851,545	38,857,100	39,162,357	40,566,812	-1,404,455
2006년	41,942,884	41,986,650	40,894,312	41,944,663	-1,050,351
2007년	43,307,076	43,328,837	43,393,690	44,065,427	-671,737
2008년	45,129,438	45,167,063	45,867,130	45,121,896	745,234
2009년	47,476,169	48,328,757	-	-	-

주: <표 III-2>을 근거로 계산·작성

#### <지방예산수입 대폭 초과 수행>

- 2008년에도 지방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초과 수행하였음.
  - 지방예산수입은 2005년 14.2%, 2006년 14.9%, 2007년 10.9%, 2008년 17.1% 초과 수행
  - 국가예산수입은 2005년 0.8%, 2007년 0.2%, 2008년 1.6% 초과 수행하였으나 2006년에는 2.5% 미달

#### <국방비의 결산지출 구성비 미미한 증가>

- 2008년 결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중 국방비의 구성비는 전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하였음.
  - 북한은 결산지출 항목 중 국방비의 구성비(15.8%)만 발표

### <표 III-4> 북한의 결산지출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국방비
2003년	-	40.5	15.7
2004년	41.3	40.8	15.6
2005년	41.3	-	15.9
2006년	40.8	-	16.0
2007년	-	-	15.7
2008년	-	-	15.8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 나. 2009년 예산

##### <국가예산계획의 총 증가율 상승>

- 국가예산계획의 총 증가율이 5년 만에 상승하였음.
  - 북한의 예산계획의 총 증가율은 수입과 지출 모두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둔화
  - 2009년 국가예산수입계획과 국가예산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각각 5.2%, 7.0% 증액 편성
  - 이에 따라 2009년 예산수입계획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예산지출계획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4.5% 포인트 상승

**<예산수입계획의 증가율: 모든 부문 상승>**

- 북한이 예견한 2009년 예산수입계획의 부문별 증가율은 모든 부문에서 2008년 대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 북한 예산수입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단위: %)

	국가기업 이득금	협동단체 이득금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사회 보험료	재산 판매	기타
2003년	5.0	3.3	-	3.7	6.7	-	-
2004년	16.5	-	-	-	-	-	-
2005년	13.5	8.4	-	-	3.0	-	-
2006년	7.2	23.2	1.8	12.0	141.0	1.7	0.9
2007년	6.4	4.5	9.6	15.4	15.1	-	-
2008년	4.7	0.4	2.6	3.1	1.1	-	-
2009년	5.8	3.1	6.1	3.6	1.6		

주: 2006년부터 부동산사용료, 그 이전에는 토지사용료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예산지출계획의 증가율: 선행부문 급감, 여타 부문 증가>**

- 2009년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은 2008년과 비교할 때 선행부문은 급감한 반면 여타 부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선행부문: 2008년(49.8%) 대비 2009년(8.7%)의 증가율은 41.1% 포인트 급감하였으나 2008년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감안할 때 정상 수준의 증가율로 환원
  - 여타 부문: 2008년도와 비교 가능한 모든 부문에서 증가율은 상승

<표 III-6> 북한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민경제비	농업	21.3	-	29.1	12.2	8.5	5.5	6.9	
	경공업	12.4	-	-	-	16.8	-	5.6	
	선행부문	전력: 12.8 석탄: 30.0	-	-	9.6	11.9	49.8	8.7	
	과학기술	15.7	60.0	14.7	3.1	60.3	6.1	8.0	
	건설	18.5	-	-	-	-	-	-	
인민적시책비	교육	15.3	9.5	10.3	3.0	7.0	1.7	4.2	8.2
	보건	13.1	5.9			9.8		5.9	8.0
	사회보험·보장	-	-			9.4		-	-
	문화·예술	4.4	-			-		-	3.2
	체육	6.6	-			-		-	5.8
	추가적시책	-	8.1			-		-	-

자료: 북한의 각 연도 예산, 결산 발표 내용

## IV. 종합평가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제3기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를 위한 제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로켓발사를 김정일의 정치·군사·경제적 영도력의 성과로 강조하면서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와 우상화 강화
  - 국방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기능과 권한을 격상하는 내용이 2009년 수정·보충된 헌법 조항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
  - 김정일의 건강을 감안,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 방안으로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위임통치 확대
  - 내각교체 최소화 등 국가기관의 책임자들 대부분을 유임시켜 안정 추구
  
- 한편,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는 경제운용, 특히 재정운용측면에서 북한경제의 호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2008년 경제운용 결과 북한은 소폭의 재정흑자를 시현함과 동시에 지방예산수입은 계획 대비 수년래 최고의 초과 수행 실적을 달성
  - 2009년 국가예산계획에서 총 증가율이 5년 만에 증가하였고, 예산수입계획과 지출계획(선행부문 제외)의 증가율이 모든 부문에서 증가
  
-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세 번째 의안인 사회주의헌법의 수정·보충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고, 내각의 2008년 사업정형과 2009년 과업이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았음.
  - 따라서 제3기 김정일 정권의 공고화 관련 제조치 및 2009년 경제운용의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추적이 필요

#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9-06

---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9년 4월 일  
발행일 2009년 4월 일

---